

## 충남발전연구원, 新충남 시대 열어갈 터

- 2월 25일부터 이전, 3월 14일 개청식

충남발전연구원이 대전을 떠나 공주로 이전하며 제2의 개원을 맞았다.

충남발전연구원은 공주시 근흥동에 위치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내에 신청사로 2원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3월 14일 오전 10시에 공주시 근흥동 신청사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분규 충남도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그리고 각급 기관장 및 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우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연구원 가족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충남의 현안과 미래 비전 연구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1995년 개원 이래 첫 독립청사인 충발연 신청사는 지난해 4월부터 충남공무원교육원 내 부지에 39억여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71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충남발전연구원 신청사 개청식 모습〉

## 전국 8개 연구기관, 서해안 살리기 위해 머리 맞대

- 서해유류유출 환경대책포럼 출범 및 연구교류협력 체결



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분야별 정책·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국토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8개 연구 기관은 2월 15일 11시 30분에 서울 KEI에서 각 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유류유출 환경대책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

또한, 이들 연구기관은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 교환을 위한 연구교류협력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고지역 중장기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분야별 정책 제안 제시 ▲중장기 협동 연구사업(2009~2011)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환경생태연구팀장의 '긴급방제 상황과 향후 대응'이란 주제 발표도 있었는데, 정 박사는 "해수욕장 조기 복원·개장과 수산업 조업재개를

위해서는 방제 종료시점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광 사업을 위해 해수욕장 조기개장을 희망하는 움직임과 조기 개장시 양식어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어질까 우려하는 갈등 등 방제·보상기관과 현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수욕장 조기 개장을 위해 방제기법의 강도를 증가하면 생태계회복 속도가 늦어지거나 추가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수준의 친환경적 방제기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유류오염 연안해역 정화방제 평가를 수행한 캐나다 SCAT팀이 언급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방제·보상기관, 관광·경제 관련 상가·해수욕장 종사자,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운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포럼 관계자는 “1차 정책제안 보고서를 올 6월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종합 보고서를 올 하반기에 발간하고, 각 연구기관별 유류유출사고 관련 정책카페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환경복원과 피해배상, 제도개선 등에 대한 발표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우리 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 개최

— 유류유출 피해지역 갈등 예방과 사고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시급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2월 13일 태안군청 상황실에서 희망제작소 제남관리연구소(소장 이제은)와 공동으로 “우리 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해 12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차 세미나에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피해지역의

미래발전과 갈등관리, 주민의 복지와 건강, 주민공동협의체 구성 등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주제들로 선정되었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개회사에서 “피해지역의 환경문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공동체의 해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간, 주민간, 민-관 간의 갈등 예방 노력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심천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역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사고 발생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사고원인자의 무책임한 행위, 피해배상 및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갈등 심화로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갈등 구조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므로 피해주민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해결하고, 사고 책임 여부의 결과에 따른 잠재적 갈등 해소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제발표에 나선 박태운 교수는 “태안에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서 이 지역은 갯벌의 기능과 관광자원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개발에 매우 적합하다.”고 말하면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적 생태모니터링 실시 ▲대규모 개발이 아닌 소규모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실행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 ▲갯벌 간척·매립을 최소화하고, 갯벌의 정화능력 상실을 막는 방안 실행 ▲생태관광지 개발 시 생태계 현황 파악과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한 수용능력 산정 ▲태안의 자연자원 및 문화적 자원 등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의 이주호·최희천 연구원은 “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앙집권적 대응일 경우 구조적인 유연성을 저해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 그리고 관할 영역의 갈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한 반면, 비록 정책 결정의 집행으로 전부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다수의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조정과 통합 등의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류유출사고 협의체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운영을 위한 재원과 공식화된 운영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의무화하고 목적과 기능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협의 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주민대표자회의를 함께 뒤 이해관계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 수립시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이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 국제 심포지엄

-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진지한 토론 열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 공동으로 1월 24일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열렸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하여 도청이전 신도시를 충남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후에 진행된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국내외 도시설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다양한 제안과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관련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 실무 설계자 및 지역내 각 대학 관계자 등 300여명에 달하는 청중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히 매끄러운 행사진행과 우수한 발표자, 토론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계획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국에서 초청된 발표자들은 22일 입국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23일 헬기를 이용하여 상공에서 사업대상 부지 전체를 답사하는 등 심포지엄에 대비하여 진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런던대학의 매튜 칸모나 교수와 세계적인 도시개발기업인 리포 그룹의 고든 벤튼 씨는 도정 이전 신도시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로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 MIT대학의 폴 부케즈 교수는 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직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데 치중하기보다 상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도시설계 전략을 강조하여 주목을 받았다.

나고야 대학의 시미즈 교수와 광주대학교의 이명규 교수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민과 함께 진행하는 설계 과정의 중요성을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제안하였다.

각 분과별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중앙대학교 김찬호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이 비단 환경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도시설계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대한주택공사의 조성학 부장은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도시공간과 개방적인 관계를 맺는 공간구조를 구상하여 도시 전체가 활력있는 생활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박소현 교수와 경원대학교의 정석 교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

적극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문화에 적합한 도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지역주민이 함께 계획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분과별 토론 이후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박기풍 본부장, 백운수 미래 E&D대표, 남궁영 충청남도 도청 이전본부장이 참여해 주요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집중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내용들을 최종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충청남도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주요 과제와 계획방향에 대한 제안을 앞으로 진행될 개발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계획이다.